

조그마한 부주의로 손해를 보지 맙시다

*** 조그만 주의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피해들이 우리를 생활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것 같다. 특히 양계장의 경우 사양관리 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설비가 최신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그만 부주의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양계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체크할 일들을 시리즈로 엮어 보기로 한다.....***

최명옥

(홍성사료)

벌써 몇 주째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하에 빠져 있다. 요즈음 같아서는 양계에 손댄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매일 같이 일어나고, 무슨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서 닭이 하루에 알을 두개씩 막 낳아 주는 망상에 사로 잡힐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루의 일과가 귀찮아지고 닭 울음소리만 들어도 정이 떨어지게 된다. 사료값은 오르는데 산란율은 전 보다 훨씬 떨어지고, 파란은 더 많이 생기고 하여튼 닭을 길러서 내주머니에 남아 있을 돈은 한푼도 없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급이기에 사료는 얼마나 차있는가? 물통은? 웬은 잘 돌아가는가? 사료섭취량은 얼마나 되는가? 파란은 얼마나 나오는가?에 통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면, 또 그런 것을 체크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양계장에서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가 직접 모르더라도 종업원들이 항상 체크하고 있다가 주인이 물어오면 즉각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양계장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새로운 마음으로 양계장의 환경정리를 다시 실시하고, 청소를 하고 모든 기구들을 제자리에 정돈시킨 다음 작은 일이지만 중요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료손실

가장 손해를 많이 주는 것이 사료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수만원씩 손해를 보는 일이 비일 비재하다.

산란계는 보통 한마리가 1년에 38~40kg의 사료를 섭취하는데 만일 이 중에서 한마리가 1kg씩 파헤쳐버린다면 1,000수면 1,000kg, 10,000수면 10톤 가까운 사료를 버리게 되는 결과이다. 오히려 따져도 1,000수에서 5만원, 10,000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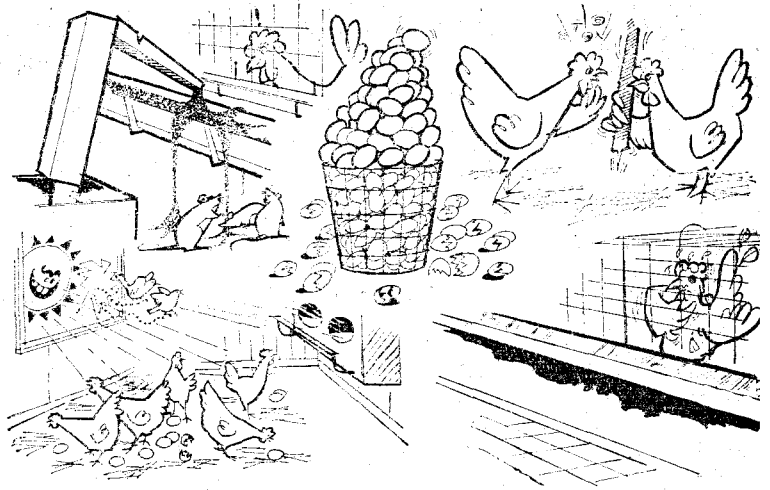
50만원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 흘려버리는 사료를 전부 닭이 섭취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5만개의 알을 더 낳을 수 있었다는 결론이다. 사료의 손실은 대개 사료운반통의 불비에서 일어나거나, 급이기의 결함, 부족등에서 유발되기가 쉽다.

외바퀴 사료운반통에 사료를 가득채우고 계사의 좁은 통로를 달려가는 일이 있을 때 심중팔구는 사료를 흘리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료운반차는 반이상 사료를 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방법이 되고 좀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사료통에 금을 그어 중량을 표시해 놓으면 정확한 양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급이기에서 오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두번씩 급이기에 사료가 제대로 들어 있는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봉상급이기에서는 1/2이상, 원형급이기에서는 1/3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 반대로 급이기에 사료가 너무 없어서 1/2인치 이하가 되면 손실이 많이 오게 마련이다. 이 최소의 양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급이기에 사료를 자주 채워주는 일은 사료의 손실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평사에서 원통형 급이기를 달아 줄때 급이기의 높이를 닭의 등높

이로 맞춰 주어야 하고 급이기 솟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최소한 한 마리에게 1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사료의 손실을 막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양계장을 말끔히 정돈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체크하기 시작한 첫 단계에서 양계장 주인은 무언가 새로운 용기를 얻었을 것이며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소홀했던가” 뉘우쳐질 것이다. 사료 손실을 막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다음은 일제히 급수기를 점검하도록 하자.



깨끗한 급수기

닭은 사료섭취량의 2배에 해당하는 물을 섭취하며 충분한 물의 공급으로 사료효율과 발육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급수기와 급수기 주변은 가장 세균오염이 되기 쉬운 곳으로 급수기는 1일 1~2회 닦아주고 1주에 2회정도 소독을 하여야 하며 급수기 주변의 젖은 깔짚은 수시로 갈아주어 질병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철저한 점등관리

아무리 철저한 점등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전구가 끊어져 있거나, 먼지가 끼어 있으면 닭의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샷갓이 떨어져 나간 전등이 발견되면 즉시 갈아 끼워야 한다.

전등을 켜고, 끄는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보통은 14시간 내지 16시간 조명을 유지해주면 되지만 특히 주의할 것은 산란율이 최고로 올라간 계군에서는 절대로 조명 시간이 줄어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부리 자르기

부리는 닭으로서는 손과 같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를 먹는 일뿐만 아니라 서로 싸우는데 무기로서, 사료를 파헤쳐 버리는 삽으로서, 계란을

깨뜨려 병아리를 탈생시키는 조산기구로서, 다른 닭의 꼬꾸니를 쪼아버리는 송곳으로서의 역할을 전부해낸다. 이런 일들이 닭에게는 필요할지 몰라도 닭을 기르는 양계인에게는 “사료를 먹는 기능” 이외에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있어서 손해가 나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부리를 잘라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디비킹의 시기를 언제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릴때 해주는 것이 좋다.

보통 6~8주에 실시하며 윗부리는 2/3을 자르고 아래부리는 1/3을 자른다.

필요할 때만 뎀을 돌릴것

뎀이 장치되어 있다고 해서 창문하나 열면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는 것도 일부러 뎀을 돌리는 수가 종종있다. 봄, 여름, 가을은 보통 뎀없이도 환기를 충분히 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문을 꼭 닫아둔 계사라면 계사내의 암모니아 가스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뎀은 뎀을 내면서 돌아가야 하지만 창문을 열어도 될때는 될 수 있는한 비용을 절감시켜서 이익난에 붉은 글자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내외부 기생충 구제는?

내부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어도 두번은 구충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10~12주령에 1차투

여하고 성체 편입전에 한번 더 구충제를 투여하여 산란충에 기생충의 피해없이 알을 잘 낳아 주도록 해준다.

외부기생충(이, 진드기)에 의한 피해도 상당히 크다. 이유없이 산란율이 5%정도 떨어졌을 때 한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외부기생충이다. 진드기는 닭의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계군과 계군사이를 돌아다니며 질병을 유발시키기로 한다. 1주일에 한번 정도 개체검사를 실시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기생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체크해보도록 하자.

1. 한번 사용한 깔짚은 양계장 쓰레기통에 두지 말고 즉시 소각한다. 쌓아 둘 필요가 있을 때는 표면을 강력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 두고 한번 사용한 계사내의 벽이나 바닥은 뜨거운 물로 닦아낸 다음 소독을 해야한다.

2. 밀사를 피하고 평사계사 바닥에는 똥판을 설치한다.

3. 어린병아리와 노계의 접촉을 막을것. 관리자에 의한 전파, 양계기구에 의한 전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 어린병아리는 노계보다 특히 감염이 잘된다.

..... 올인·올아웃

시험성적을 보면 일령이 다른 계군을 같이 넣은 계사에서는 수당 년간 20~30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산란율 이외에도 질병 발생율이 현저히 감소했다. 이등시 스트레스 방지들을 위하여 약을 투여할 수도 있다.

..... 파란문제

조그마한 부주의로 손해를 입지말자는 얘기는 바로 여기에 가장 적합한 말일 것이다.

케이지의 구조가 잘못되어 깨지는 경우도 있고, 닭이 잘못하여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계란이 깨지기 쉬운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수집자의 방식에 있다고 본다. 난좌에 하나씩 하나씩 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간혹 바구니에 수집할 때 보면 알이 가득찬 그릇에 한개만 더 넣자는 생각으로 한개를 넣는 순간 “아차”바구니 밑으로 끈기있는 액체가 흘러내리는 경우

가 비일비재하다.

사료운반차에 사료를 반 이상 담지말자는 식으로 바구니에 집란할 때는 절대로 반이상을 채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주 집란하는 것도 파란방지를 위한 길이다.

평사에서 산란상자에 놓지 않고 바닥에 놓는 것도 문제가된다. 별도로 그알을 수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알이더럽게 오염되어 등급이 떨어져 제값을 못받게 되고, 그러므로 5%이상 바닥에 알을 낳으면 계사의 구조나 산란상자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난상이 계사전체에 균등히 배치되어 있어야하고 최소 5마리에 한개의 난상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난상은 약간 어두우면서 환기가 잘되어야 하며 난상안에 대패밥, 왕겨, 패분가루등을 넣어 주는 것도 좋다.

..... 방문객

양계장에 찾아 오는 사람들에게는 안면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종종있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양계장 이곳 저곳을 무상으로 출입시킨다면 이것도 수익을 줄이는 데 큰 몫을 차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들여 보냈던, 양계장일지라도 새로운 결심을 한 지금은 태도를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종업원들의 위생문제도 철저히 체크하여야 하며 계사별로 관리책임이 따로 있다면 가끔씩 다른 계사로 왔다 갔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특히 부화장이 같은 지역안에 있는 종계장에서 밤에 전종업원이 부화실에 모여 „한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 깔짚관리

평사일 경우에 계군의 건강과 종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깔짚을 사용해야 한다. 깔짚은 그 지방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흡수성이있으며 탄력이 있어야한다. 한번 사용한 깔짚은 다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추운 지방에서는 10cm 두께로 하여 찬 바닥에 닿지 않게 해 주어야 한다. 더울 때는 깔짚을 조

금 사용해로 되나 계분이 바닥에 늘어 붙지 않게 하고 청소나 소독이 간편하도록 깔짚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깔짚이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병의 원인이 되고 너무 습하면 콧물이나 곰팡이 피해가 증가한다.

정확한 예방접종

근래에 와서 육성기간중 뉴캐슬이나 계두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줄어들어 든다고 보겠으나 예방접종의 결함, 관리자의 부주의, 경영자의 감독 불철저에서 온다고 볼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실시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안도감을 가지는 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뉴캐슬 예방후에는 반드시 역가를 검사하여 그 병에 대한 저항력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병아리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금할 것이나 건강한 병아리라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특히 생독접종시는 호흡기계통질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미리 환경을 좋게 해준은 물론 접종 전후 3일간은 항상제와 비타민제를 추가로 강화하여 급여하는 것이 좋다. 백신의 음수접종시에 사용하는 물에는 여하한 소독약도 접촉 또는 혼입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기록을 남길 것

양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척도는

이익과 손실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할 때는 반드시 능력과 경제적인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록을 남기므로써 양계를 성공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영진단의 자료가 되기도 하며 기록할 때는 다음 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매일 폐사율, 폐사원인(진단, 처방을 기록할 것) 사료섭취량, 백신접종(날자, 형태, 로트넘버, 제로원 및 구입처) 약품사용(무슨약, 언제, 사용량). 산란율.

위의 기록들을 정확히 했다 하더라도 기록표 마지막 칸을 메꾸는 즉시 책상서랍에 넣어 두면 손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다.

계란 저장고안에 있는 김치독

계란은 어떤 냄새든지 흡수가 잘되므로 계란 창고가 냉방시설이 되어 있다고 해서 김치독 같이 넣어 두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안다. 계란 창고 벽에 있는 공기 여과기를 소제하여 환기가 잘되도록 해야한다.

이상 열거한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점은 얼마든지 있다. 모순점이 발견되는 대로 개선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닭울음 소리가 즐거운 노래소리로 들릴 수 있으리라고 본다.

첫번째 캠페인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지만 다음호부터는 양계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보겠다.

* 양계가의 거울이 되는 육추일지 *

육 추 일 지

권당 : 30원

육추에 관한 풍부한 내용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기록표로서 증명함과 아울러 양계가에게 보다 실질적인 수입을 올려줍니다.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소액환을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 초동 18-11

한국가금협회 26-0321, 4692